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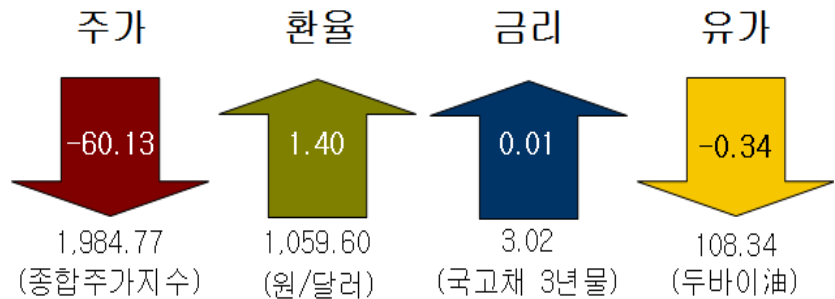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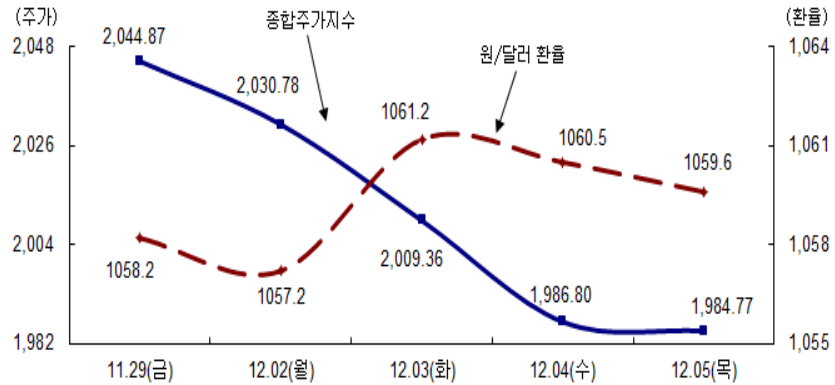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유로존의 그레이 스완, 재정위기국의 불안요인  
-2014년 유로존 빠른 경제 회복 어렵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9~12.0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유로존의 그레이 스완, 재정위기국의 불안요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성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유로존의 그레이 스완, 재정위기국의 불안 요인

#### ■ 유로존 경제의 회복 기대감 상승

최근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가(GIPS)들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실질GDP는 위기 이전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 102.1로 성장으로 회복된 반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가들은 100에서 91.7로 8.3% 하락해 유로존 내 경제 회복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유로존 성장회복 국가들과 재정위기국가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2014년 유로존 경제의 위협 요인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 유로존의 그레이 스완, GIPS 경제의 불안 요인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 회복은 5가지 측면에서 지체되고 있다. **첫째, 재정지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성장회복 국가들은 2010년 83.2%에서 2013년 2/4분기 88.4%로 5.2%p 증가했지만, 재정위기국가들은 동기간 105.8%에서 131.5%로 25.7%p 악화됐고, 2012년말 대비로도 8%p 늘었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성장회복 국가들은 신재정협약의 기준인 GDP의 -3% 이내로 줄었지만 재정위기국가들은 2013년 들어서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유로존의 항구적 위기관리체계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설립으로 위기국 지원 여력이 확대된 만큼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다. **둘째, 금융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국가들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도 2013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줄어들어 향후 은행부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 **셋째, 고용 부진도 심각하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신규 일자리는 2010년 1/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13년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3%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13년 1/4분기 19.7%로 상승하면서 성장회복 국가와의 실업률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7월 이후 1% 이하로 떨어졌고 10월에는 -0.3%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국가들은 긴축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로화 평가 절상 등으로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유로화는 2013년 3월말 1.278(달러/유로)에서 11월말 1.360로 저점 대비 6.4% 절상됐고, 재정위기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16.6%에서 2013년(1-9월) 1.6%로 떨어졌다. 특히, 산업 경쟁력 격차 등 유로존 내 구조적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어 재정위기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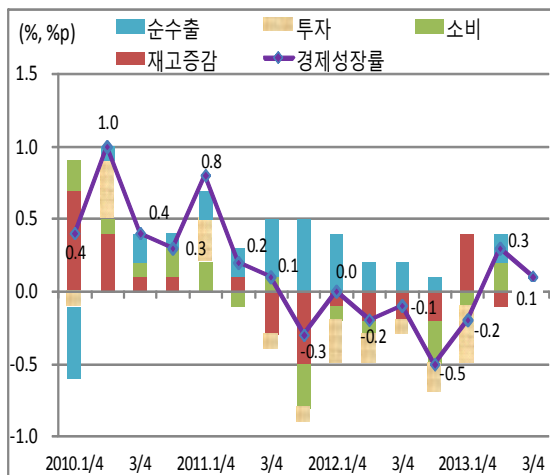
유로존 경제 지표 개선은 독일 등 성장회복 국가에 의한 것으로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고 구조적인 불균형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유로존은 2014년에도 빠른 경제 회복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회복 국가 및 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對유럽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유로존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호주의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금융부실 확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투자자금 유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1. 유로존 경제의 회복 기대감 상승

○ 최근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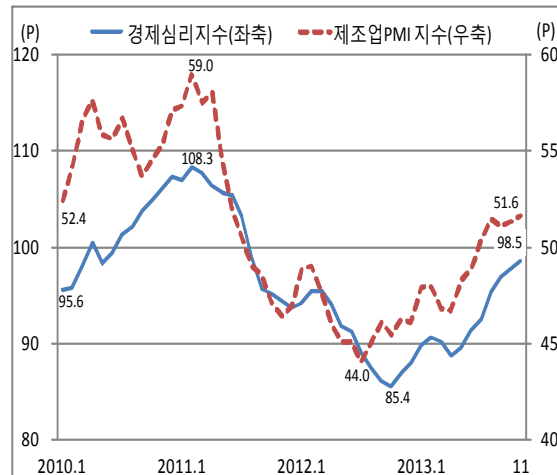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1년 3/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져 2013년 2/4분기 전기대비 0.3%를 기록하며 2011년 2/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3/4분기에도 전기대비 0.1%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감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은 2014년에도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3~0.5%의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연간으로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의 경기선행지표 및 제조업 PMI지수도 2013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
  - 유럽위원회(EC)가 발표하는 유로존 경제심리지수(ESI)<sup>1)</sup>가 2013년 11월 98.5로 전 저점인 2012년 10월 85.4 대비 13.1p 상승하며 개선
  - 유로존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도 2013년 11월 51.6으로 전 저점인 2012년 6월의 44.0 대비 7.6p 상승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유로존 경제성장률 및 기여도 추이 >



자료 : Eurostat.  
주 : 분기별 수치이며, 전기대비 증가율임.

< 유로존 주요 경기지수 추이 >



자료 : EC, Bloomberg.  
주 : 월간 기준임.

1) 유럽의 종합경기지수로 산업, 서비스업, 소비자심리, 건설 및 소매판매의 5가지 부문에 대한 설문으로 계산되며 기준선은 100임.

○ 금융시장의 안정도 유로존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유로존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됨

-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그리스가 2013년 1월말 4,477bp 에서 11월말 현재 658.1bp 낮아졌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안정
- 위기국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그리스가 2012년 6월 27.8%에서 2013년 10월 8.7%, 포르투갈도 동기간 10.5%에서 6.3%로 낮아졌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금리도 4%대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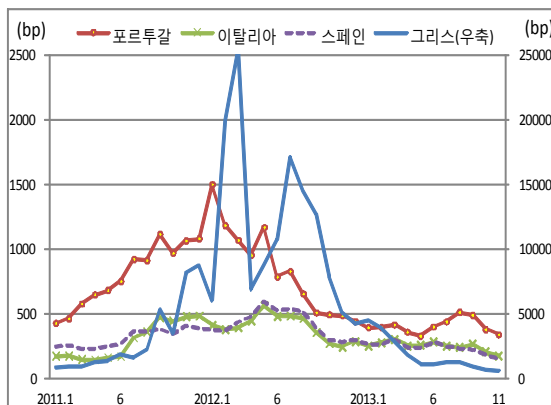
○ 하지만 17개 국가로 구성된 유로존 내 경제 회복은 차별화되고 있음

- 독일 등 성장이 회복된 국가들도 있으나 재정위기국가(GIPS)의 경제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성장회복 국가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으로 경제가 플러스 성장 기록하고, 실질 GDP도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IMF 추정치) 이 102.1로 회복2)
-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재정위기국가들은 실질GDP 가 2008년 100에서 2013년 91.7로 -8.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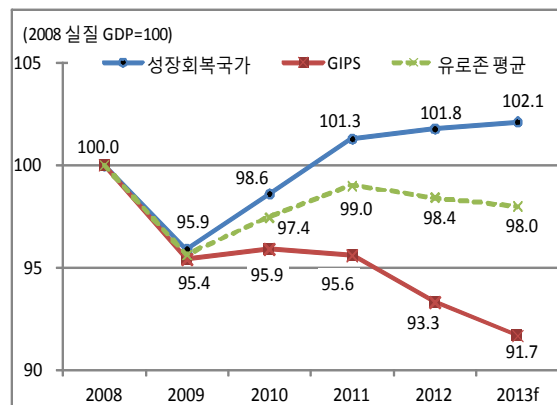
○ 이에 유로존 성장회복 국가와 재정위기국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2014년 유로존 경제의 위협 요인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재정위기국가의 CDS프리미엄 추이 >



자료: Bloomberg.  
주: 월말 기준.

< 유형별 유로존 경제 회복 추이 >



자료: IMF 자료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성장회복국가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이며, GIPS는 그리스 등 재정위기 4개국임

2) P.11 참고 1 참조.

## 2. 유로존의 그레인 스완<sup>3)</sup>, GIPS 경제의 불안 요인

### ① 재정지표 악화 지속

○ 구제금융, 긴축 재정 등에도 재정위기국가(GIPS)들의 재정지표는 여전히 악화

- 재정위기국가들의 감소 성장이 지속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는 계속 악화

· GIPS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2010년 105.8%에서 2013년 2/4분기 131.5%로 악화됐는데 2012년말 대비로도 8%p 증가. 특히,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170%를 넘었고,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120~130%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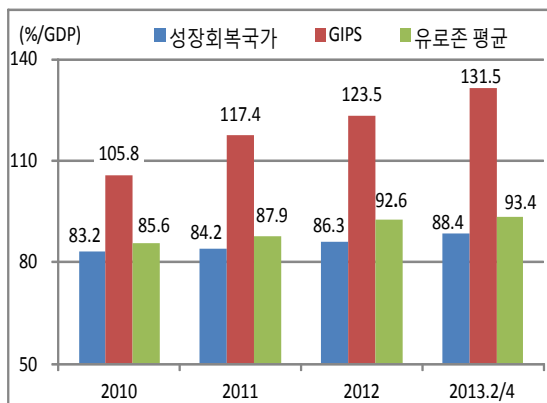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의 개선도 더딤

· 성장회복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2년 4/4분기 -0.6%로 신재정협약<sup>4)</sup> 기준인 GDP의 -3% 이하로 줄어든 반면, GIPS는 2013년 들어서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4분기 -11.5%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 다만, 아일랜드 등의 구제금융 졸업이 가시화되고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설립으로 인한 지원 여력 확대로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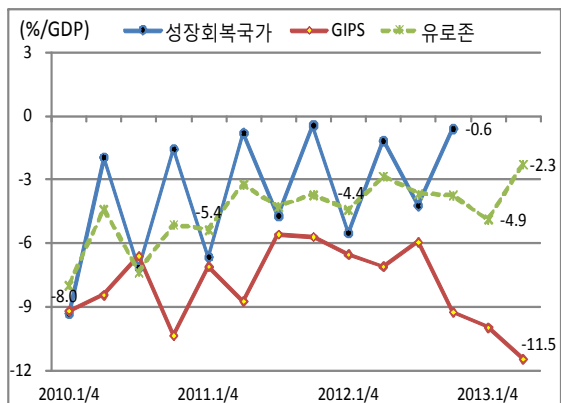
·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가 2013년 12월, 스페인도 2014년 1월 구제금융의 졸업을 선언했고, 지난 7월 항구적 위기관리체계인 ESM이 출범하면서 위기국을 지원할 수 있는 약 5,000억 유로의 대출여력이 확보됨

< 정부부채 추이 >



자료 : Eurostat.

< 분기별 재정적자 추이 >



자료 : Eurostat.

주 : 성장회복 국가의 2013년은 독일과 프랑스의 분기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음.

3)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는 블랙 스완에서 파생된 용어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를 말함.

4) 2013년 1월 발효된 신재정협약은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GDP의 -3%, 누적채무 60%를 넘으면 자동제재하며, 국채발행계획도 EU에 사전 제출하여 통제 받게 됨

② 금융 부실은 확대

○ 재정위기국가들의 은행부실이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재정위기국가들의 은행부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그리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0년 9.1%에서 2013년 1/4분기 27.9%로 높아졌고, 이탈리아 13.7%(2012년말), 포르투갈도 10.4%로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의 또다른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자금조달 여력 등이 낮은 GIPS의 은행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면 추가 구제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금융시장 리스크도 재차 커질 수 있음

-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은행부실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음

- 유로존의 가계 대출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1년 전년대비 0.8%에서 2012년 -4.0%로 감소했고, 2013년에도 전월대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지속
- 특히, GIPS의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3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자금지원이 위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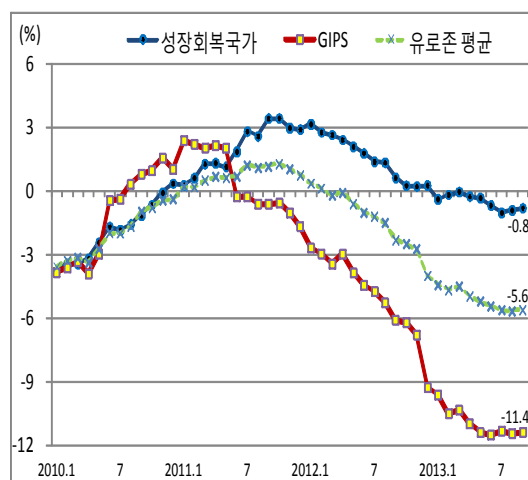
< 은행부실비율 추이 >

		(%/총대출)				
		2008	2010	2011	2012	2013
성장 회복 국가	독일	2.9	3.2	3.0	-	-
	프랑스	3.8	4.3	4.3	4.3	
	벨기에	2.8	3.3	3.5	-	-
	오스트리아	1.9	2.8	2.7	2.8	2.8
GIPS	이탈리아	6.3	10.0	11.7	13.7	-
	스페인	2.8	4.7	6.0	7.6	-
	포르투갈	3.6	5.2	7.5	9.8	10.4
	그리스	4.7	9.1	14.4	23.3	27.9

자료 : IMF, FSI.

주 : 총대출 대비 무수익대출 비중이며, 2013년은 1/4분기임.

< 기업 대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ECB.

주 : 비금융기업 기준이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③ 고용 부진 심화

○ 재정위기국가들의 신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고용 부진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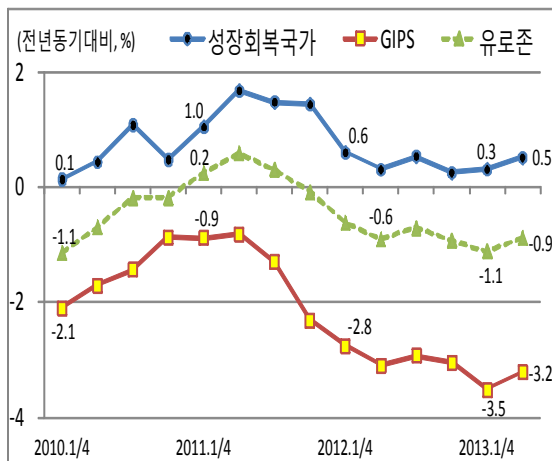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가들의 신규 일자리가 감소폭이 2011년 이후 확대되면서 유로존의 신규 일자리도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GIPS의 신규 일자리는 2010년 1/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3년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3%이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유로존의 신규 일자리 증가율도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성장회복 국가들의 신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지속

- 재정위기국가들의 신규 일자리 감소가 빠른 실업률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성장회복 국가 및 유로존 평균과의 실업률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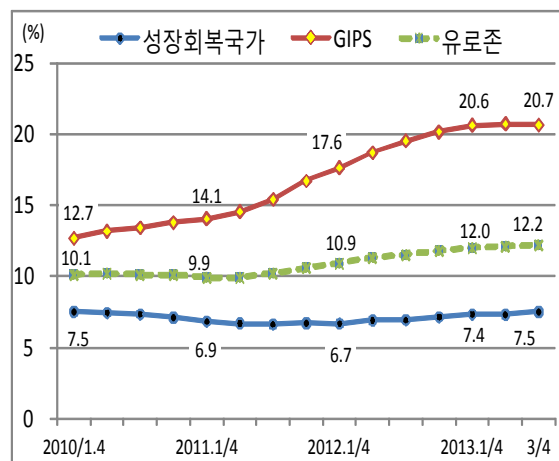
- 성장회복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2013년 3/4분기 기준 7.5%로 유로존 평균보다 4.7%p 낮음. 특히, 프랑스의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며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실업률이 5.3%까지 낮아지며 실업률이 안정
- 반면, GIPS는 그리스, 스페인의 실업률이 2010년 이후 계속 악화되면서 2013년 3/4분기에는 27.3%, 26.6%로 유로존 평균의 2배를 넘어섬
- 이에 GIPS와 성장회복 국가, 유로존 평균과의 실업률 격차도 2010년 2~5%p 불과했지만 2013년 3/4분기에는 9~13%p까지 확대됨

< 신규고용 증감률 추이 >



자료 : Eurostat.

< 실업률 추이 >



자료 :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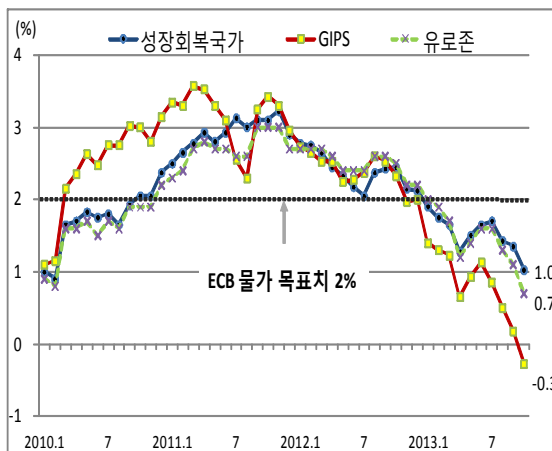
주 : 실업률은 해당 국가의 평균치임.



④ 디플레이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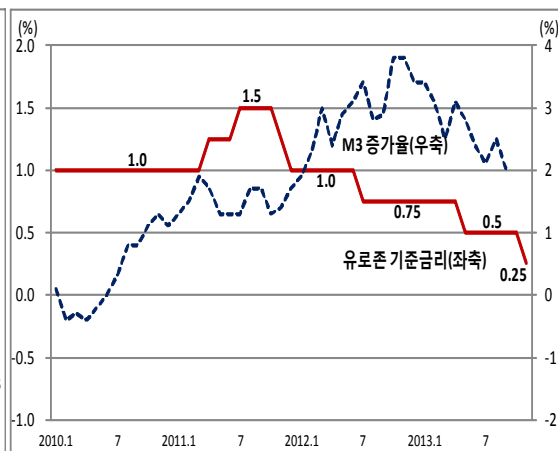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재정위기국가들의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고, ECB 물가 목표와의 괴리도 확대됨
    -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월 2%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10월 0.7%로 낮아지면서 ECB의 물가 목표치인 2%와 괴리가 확대됨.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도 2013년 10월 1.0%를 기록
    - 특히, 성장회복 국가보다 GIPS의 평균 소비자물가가 2013년 7월 이후 1% 이하로 떨어졌고 10월에는 -0.3%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ECB가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긴축을 유지해야 하는 재정위기국가들은 정부지출을 늘릴 수도 없어 경기 부양도 어려움
    - ECB는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2013년 5월과 11월 각각 0.25%p를 인하하여 0.25%로 낮췄고 금융완화정책도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으로 MB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또한, GIPS는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부지출 증가율이 2012년 -4.1%에 이어 2013년에도 -3.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부양도 어려운 상황임

< 소비자물가 추이 >



자료: Eurostat.

< 유로존 기준금리와 통화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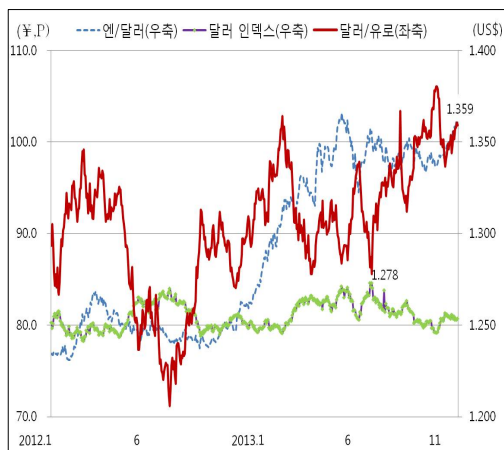
자료 : ECB, Eurostat.

⑤ 수출 경쟁력 약화

○ 최근 유로화 강세, 구조적 불균형 등으로 재정위기국가의 수출 경쟁력은 재차 약화

- 주요국 통화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수출 증가율은 하락
  - 달러/유로 환율은 2013년 3월말 1.278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11월말 1.360로 3월말 저점 대비 6.4% 절상된 반면, 엔화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큰 폭으로 절하됐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낮아지며 가치가 하락
  - 이에 유로화 가치 하락, 노동비용 감소 등으로 2010년 16.6%, 2011년 12.9% 증가했던 재정위기국들의 수출은 2012년에는 4.2%로 낮아졌고 2013년 1~9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6% 늘어나는데 그침
  
- 특히 성장회복 국가 대비 재정위기국가들의 낮은 산업 경쟁력, 유로화의 상대적 평가절상 등도 개선되지 못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음
  - 독일, 프랑스 등 성장 회복 국가들이 화학,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반면, 재정위기국가들은 식음료, 섬유, 의복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았음
  - BIS에 따르면, 경제가 비교적 견고하고 성장으로 회복된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이 재정위기국가들보다 더 낮아 불균형이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

< 주요국 환율 추이 >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엔/달러는 상승할수록 평가절하, 달러/유로는 상승할수록 평가절상됨을 의미.

< 제조 산업별 비교우위(RCA) 지수 >

	음식	의복	화학	의약품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독일	0.74	0.50	1.00	1.34	1.22	1.60	1.91
프랑스	1.18	0.70	1.30	1.70	0.88	0.87	1.15
벨기에	1.28	0.72	2.20	3.17	0.42	0.70	1.09
오스트리아	0.87	0.55	0.47	1.52	1.35	1.40	1.34
그리스	2.16	1.47	0.71	1.26	0.65	0.29	0.09
이탈리아	0.87	1.58	0.70	1.10	1.05	1.82	0.73
스페인	1.55	1.21	1.09	1.28	0.95	0.65	2.17
포르투갈	1.12	2.15	0.76	0.46	1.01	0.43	1.46

자료: EC, 유럽경쟁력보고서.

주: 2011년 기준이며, RCA가 10이상이면 경쟁력을 보유.

### 3. 시사점

- 유로존 경제 지표 개선은 독일 등 성장회복 국가에 의한 것이며 재정위기 국들의 경제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구조적인 불균형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유로존은 2014년에도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임
  - 유로존 경제지표의 개선과 경제 회복 기대감은 유로존 경제에서 약 57%(2013년 기준) 차지하는 독일 등 성장회복 국가들에 기인하며, 약 31%를 차지하는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주요경제 전망 기관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 -0.6~-0.4% 기록하고, 2014년에는 0.9~1.2%의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0~1%대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실질 GDP는 2008년 위기 이전보다 8% 이상 감소
  - 특히, 재정위기국가들에서 재정지표 악화, 금융부실 확대, 고용 부진, 디플레이션의 현실화 및 수출 경쟁력 하락 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2014년에도 경제 위기가 반복될 수 있음
    -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재신임 선거, 은행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 대립 등 정치적 이슈들도 재정위기국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국가 간 차별화도 커진 만큼, 성장회복 국가 및 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對유럽 수출 전략을 재정비하고, 유로존 수출 경쟁력 하락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하며, 유럽 은행부실 확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함
  - 첫째, 성장 회복국가 및 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對유럽 수출 전략을 재정비
    - 2013년 상반기 유럽 수출은 176.7억 유로로 전년대비 10.8% 감소했고, 무역수지도 14.2억 유로 흑자에서 10.2억 유로 적자로 전환된 만큼, 독일, 프랑스 등 성장이 회복된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함
    -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의 경제 회복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빠른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들 국가를 한-EU FTA를 극

- 대화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야 함
- 또한,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EU의 28번째로 가입했고, 라트비아도 2014년 1월 1일 18번째 유로존 가입국이 되는 만큼, 발칸지역과 발트 국가로의 시장 확대 전략도 필요함
- 둘째,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EU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호주의에도 적절히 대응
- 전세계 보호무역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현재 무역 상대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규제 조치<sup>5)</sup>가 2013년 10월 현재 EU 차원에서 125건이 공동 도입됨
  - 또한, 독일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고 유로존 국가들도 관세 인상 등 전통적 무역규제 이외의 자국산 우대, 공공조달법 개정 등 신보호주의 규제 도입이 증가
- 마지막으로, 재정위기 국가들의 은행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국내 유럽계 투자자금의 유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02-2072-6217, chjss@hri.co.kr)

5) GTA는 보호무역의 강도에 따라 적색 및 황색조치로 구분하는데, 적색 조치는 기시행된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명백히 차별하는 조치이며, 황색조치는 기시행된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차별할 개연성이 내포된 조치와 도입하겠다고 발표 또는 검토 중인 조치로 외국 제품 및 상업적 이익을 차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조치를 가리킴.

<참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의 실질 GDP 추이>

○ 독일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는 이미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의 경제 회복은 차별화

- 성장회복 국가는 2013년 실질 GDP(IMF 추정치임)가 위기 이전 전고점인 2008년보다 증가한 국가들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4개국 포함)
- GIPS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으로 2013년 실질 GDP가 2008년 대비 5% 이상 하락

< 성장회복 국가와 재정위기국가(GIPS)의 실질 GDP 규모 추이 >

(단위:10억 유로)

		2007	2008(B)	2009	2010	2011	2012	2013(A)	B/A 증가율
성장 회복 국가	독일	2,386	2,405	2,283	2,371	2,451	2,473	2,485	3.3
	프랑스	1,801	1,799	1,743	1,773	1,809	1,809	1,812	0.7
	벨기에	354	358	348	356	363	362	362	1.2
	오스트리아	264	267	257	262	269	272	273	1.9
GIPS	그리스	211	210	204	194	180	168	161	-23.3
	이탈리아	1,493	1,475	1,394	1,418	1,424	1,390	1,365	-7.5
	포르투갈	165	165	160	163	161	156	153	-7.1
	스페인	1,078	1,088	1,046	1,044	1,045	1,027	1,014	-6.8
유로존		8,794	8,822	8,435	8,597	8,734	8,683	8,644	-2.0

자료: IMF.

주: 실질 GDP는 유로화 기준이며, 2013년은 IMF 전망치임.

<성장회복 국가의 GDP 성장률 추이>

	2010	2011	2012	2013(f)	2014(f)
독일	4.0	3.3	0.7	0.5	1.7
프랑스	1.7	2.0	0.0	0.2	0.9
벨기에	2.3	1.8	-0.1	0.1	1.1
오스트리아	1.8	2.8	0.9	0.4	1.6

자료:EC.

주:2013년, 2014년은 전망치임.

<GIPS의 GDP 성장률 추이>

	2010	2011	2012	2013(f)	2014(f)
그리스	-4.9	-7.1	-6.4	-4.0	0.6
이탈리아	1.7	0.5	-2.5	-1.8	0.7
포르투갈	1.9	-1.3	-3.2	-1.8	0.8
스페인	-0.2	0.1	-1.6	-1.3	0.5

자료:EC.

주:2013년, 2014년은 전망치임.

6)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말타의 실질 GDP도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신규 회원국이거나 경제규모가 작아 제외

7) 한편,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는 실질 GDP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2009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2013년 12월 구제금융 종료를 선언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1.8	2.8	3.7	1.2	2.8	0.1	1.6	1.1	2.5	2.8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4	-0.2	0.3	0.1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3	3.8	1.9
중국	9.3	7.8	8.1	7.6	7.4	7.9	7.6	7.7	7.5	7.8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1월 29일	12월 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75	2.87	0.12%p
	엔/달러	77.66	79.37	85.86	102.31	102.34	0.03¥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603	1.3590	-0.0013\$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6,086	15,822	-264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5,662	15,177	-48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3.01	3.02	0.01%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58.2	1,059.6	1.4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44.9	1,984.8	-60.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1월 29일	12월 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2.19	97.45	5.26\$
	Dubai	104.89	92.89	107.99	108.68	108.34	-0.3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74.88	277.62	2.7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322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6	2.2	1.3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